

청년 일자리·복지 정책 강화...청년이 살고싶은 광주 만든다

구직수당 300만원으로 확대...일자리스테이션 대상 늘려 청년 일자리공제 200→500명...중기 재직자 장기근속 유도 광주 3일 살기 첫선...무주택 청년 임차료 최대 24개월 지원

광주시가 청년 일자리와 자립·정착 지원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청년이 일하기 좋고, 정착하고 싶은 광주'를 목표로 구직활동 수당(드림 수당) 확대, 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 확대,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에 나선다.

가장 먼저 지역 청년들의 구직활동 수당을 기존 250만원에서 300만원(50만원씩 6개월)으로 확대한다. 청년의 직무 적성을 반영한 일 경험 드림 사업은 기존 주 25시간 5개월 근무에서 원하면 주 40시간 3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다.

미취업 청년의 초기 상담과 취업·창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일자리 스테이션은 대상자를 7000명에서 8000명으로 늘린다.

또 직장 적응 교육을 통해 입사 초기 청년이 직장에 빠르게 적응하고 장기 근속하도록 지원한다. 청년들이 구직 활동 시 경제적 부담을 덜도록 자 격증 취득 지원, 면접 정장 대여, 이력서 사진 촬영, 인공지능(AI) 모의 면접 프로그램 운영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구직 단념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 등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50만원에서 최대 350만원까지 참여 수당과 특전을 지급하는 청년 도전 지원사업을 180명 대상으로 추진한다.

지역 청년의 자립과 정착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의 청년 공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도입한 '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를

200명에서 올해 500명으로 확대한다.

이 사업은 5인 이상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도록 청년이 2년간 500만원을 모으면 광주시와 기업이 500만원을 지원해 만기 공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620명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10개월 저축하면 광주시에서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13(일+살)통장을 운영해 맞춤형 금융교육을 제공한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 임차료를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한다.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역시 연 2.5% 중 2%를 최대 4년까지 5억 5000만원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청년 부채 해소를 위해 청년재무상담소(드림은행)를 운영하고 연 9000여명에 달하는 군 북부 청년 상해보험(최대 3000만원 지급)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청년들이 광주의 문화시설과 축제에 참여하며 지역의 매력을 느끼고 교류하는 3일 살기 프로그램 '청년, 광주 어때' 운영도 시작한다.

광주시는 청년들이 지원 정책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기숙 광주시 교육청년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청년들의 취업과 복지 지원을 위해 각종 정책을 확대하고 개선했다"며 "청년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11일(현지시간 10일) 미국 샌안토니오시에서 열린 '드림위크 2025' 개막식에서 온라인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강기정 시장, 미국 샌안토니오시에 '광주 민주정신' 공유

자매도시 샌안토니오 '드림위크 2025' 개막식서 온라인 연설

강기정 광주시장이 자매도시인 미국 샌안토니오시에서 열린 '드림위크 2025' 개막식 온라인 기조연설자로 나서 5·18 정신과 12·3 비상계엄사태 등을 주제로 민주도시 광주의 경험을 공유했다. 강 시장은 애초 직접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미국 출장을 취소하고 온라인으로 대신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지난 11일(현지 시간 10일) 기조연설을 통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위로한 론 니렌버그 샌안토니오시장에게 감사를 전하고 12·3 계엄 사태 이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소개했다.

드림위크는 매년 1월 샌안토니오에서 열리는 축제다. 미국 시민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강조한 관용·평등·다양성 등 가치를 계승하고 전 세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다.

올해는 '우리는 이웃입니다'를 주제로 10일부터 26일까지 강연·전시·음악회 등을 한다.

강 시장은 이번 기조 연설에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와 맨몸으로 장갑차와 계엄군을 막아선 일, 국회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국회의원 190명이 2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의결한 일화를 설명했다.

강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밤, 계엄이 선포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계엄군보다 빠르게 국회로 달려와 맨몸으로 장갑차와 계엄군을 막아섰다. 또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간 190명의 국회의원은 단 2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고 계엄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강 시장은 또 대통령 탄핵과 내란세력의 처벌을 요구하며 추운 겨울 매일매일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의 활약을 소개하고, 이 놀라운 힘은 과거 광주의 경험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었고, 수백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철저히 고립됐던 광주시민들의 선택

은 특별했다. 낮에는 주먹과 피를 나누었고, 밤이면 광장에 모여 안부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했다"면서 "1980년 광주는 대한민국에 '절대 공동체'라는 아이디어를 보여줬고, '국가는 결코 국민을 향해 총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남겼다. 과거의 광주가 현재의 대한민국을 도운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론 니렌버그 샌안토니오시장은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세계적으로 알려진 평화의 도시 광주시민들이 보여준 연대와 단결은 영감이 된다"면서 "강 시장이 기조연설자로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지만,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광주와 대한민국의 강점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영광"이라고 화답했다.

"드림위크 2025"를 주최한 소카레 나포디아 드림보이스 대표도 "강 시장의 연설에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의 빛의 혁명은 강렬하고 영감을 주는 움직임이다. 광주의 민주정신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행사에서도 광주의 지속적인 참여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중기에 4500억 규모 육성자금 지원

유망중기·강소기업 등 우대

전남도가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융자 규모는 4500억 원으로 ▲임차료나 인건비, 연구개발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은행자금 3300억원 ▲공장 증·개축, 설비구입 등 시설투자를 위한 정책자금 700억원 ▲저신용·고금리상품 이용 중소기업에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이다.

은행자금은 3억원까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전남도가 대출 이자의 일부(1.1%포인트~2.0%포인트)를 매달 지원한다. 우대지원 시 융자 한도는 5억원, 이자는 2.5%포인트까지 확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우대 대상은 유망중소기업·강소기업, 가족화인인증기업, 소재부품뿌리기술전문기업 등이다.

지난해보다 500억원을 확대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지원받도록 추진한다.

정책자금은 전남도에서 마련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8년간 5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의 시설투자자금과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은 2.5% 고정금리, 그 밖의 기업은 3.0%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특별경영안정자금도 전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한 정책자금으로 기업당 3억원 한도, 1년간 3.9%의 금리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협약보증 대상 기업은 보증서 비용을 95% 적용하고 보증료를 0.2%포인트 인하받으며, 고금리(4% 이상) 상품을 이용하는 기업은 대환대출도 가능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실제 부담금리를 2%대로 낮춰 기업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접수는 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누리집(www.jnfund.kr)에서 가능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결식아동 급식단가 9500원으로 인상

광주시는 12일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비 단가를 올해부터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아동이나 교사·사회복지사·통장단 등이 발굴해 자치구 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한 18세 미만 아동 1만6000여명이다.

광주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아동들이 균형 잡히고 다양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인상을 결정했다. 급식카드 지원 대상 아동들은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 지역 내 가맹점 1만6000곳을 이용하거나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급식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단체 급식 특성을 반영해

지원금을 인당 8000원에서 8500원으로 인상한다. 광주시는 올해 총 224억원을 투입해 결식 우려 아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윤미경 광주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이번 급식단가 인상을 통해 결식 우려 아동에게 더욱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결식 아동이 없도록 적극 발굴하고, 이들이 더 나은 급식환경에서 영양있는 식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